

#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구역 확대 추진해야”

### 김준 광주전남연 연구위원 주장 해당 지역 어민·주민들 등의 지자체 참여 결정 가장 중요

최근 보성·순천갯벌의 참꼬막과 새꼬막, 고창갯벌의 바지락과 동족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를 포함한 철새 서식지가 여수 등 인근 갯벌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의 생산 기능이 크게 감소하고, 생태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1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의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유산구역 확대 필요성과 추진전략’에서 갯벌보전정책의 전환을 통한 세계유산구역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은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보성·순천갯벌, 신안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의 총칭으로, 유네스코에서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유산구역 확대 권고에 따른 이행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산구역 확대는 ▲세계유산 OUV의 완전성 ▲

갯벌생태계의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 ▲지역관광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도 절실하다. 또 보성·순천갯벌의 OUV를 보전·관리하고 유산관리를 통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성·순천갯벌처럼 ‘단위 갯벌’이 아니라 여차만 전체로 확대된 ‘만 단위’ 생태관광 계획과 수용태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준 책임연구위원은 “세계유산 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신규 신청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우선 해당 지역 어민과 주민들의 동의와 지자체의 참여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정(해양수산부)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문화재청)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

했다. 또 “해당 지자체는 주민과 이해당사자는 물론 공무원 대상으로 세계유산 추진 관련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반복해서 실시해야 한다”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어민, 주민,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갯벌유산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갯벌’ OUV에 준해 갯벌생태계, 해양지질, 갯벌문화(어업활동 포함) 등 갯벌자원을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주민과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유산구역 확대범위와 경계, 등재 OUV와 논리 개괄 등을 전문가의 조사·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신청서와 함께 실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형 평생주택 민간사업자 도시공사, 이달중 공모

광주도시공사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를 위한 광주형 평생주택 민간사업자를 이달 중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옛 상무 소각장 인근 1만5000㎡에 전용 면적 36㎡, 59㎡, 84㎡ 등 중·소형 460세대를 조성해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한다. 건설원가 급등, 특색있는 주거 디자인 구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시설계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의 기술력을 적용할 수 있는 공동 시행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고 도시공사는 설명했다. 입주자 모집은 3년 이상 공사 기간을 고려해 자격 판단이 가능한 준공 시점에 이뤄진다. 정민권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상무지구에 이은 제2차, 3차 평생 주택 공급 계획을 첨단 3지구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민선 8기 광주시 첫 추경 7362억 증액 시의회 제출 상생카드 할인 지원 포함

광주시는 11일 “7362억원이 늘어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액분은 애초 예산 7조 94억원의 10.5%로, 그대로 반영되면 총예산은 7조 7457억원이 된다. 일반회계는 6629억원(11.7%) 늘어난 6조 3331억원, 특별회계는 733억원(5.5%) 늘어난 1조 4126억원이다. 세입 중 지방세는 주택 거래량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 720억원,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295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1202억원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도 각각 2491억원, 2041억원 늘었다.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지원 489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과 이자 지원 36억원, 공공 배달 앱 활성화 지원 3억원 등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방역보강을 위한 정부 1, 2회 추경에 맞춰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508억원, 생활지원비 지원 564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360억원이 배정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50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급 조성 300억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78억원,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 건립에 50억원 등을 투자해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도록 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이 밖에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30억원,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최 24억원, 강기정 광주시장 공약인 영산강·활동강변 Y벨트 조성 8억원 등 문화 관련 예산도 반영됐다.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확정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1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개최된 ‘2022 전라남도 인재한마당’ 행사에서 으뜸인재, 내빈들과 전남도가 발굴한 인재들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동욱 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장학기금 고액 기탁자 등 내외 귀빈과 새천년 으뜸인재,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 참석했다.

## 새천년 미래를...전남 인재 한마당 ‘성황’

### 4년간 5588명 발굴 육성...각 분야서 두각 보여

전남도가 민선 7기 들어 역점적으로 시행중인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통해 4년간 모두 5588명의 지역 인재가 발굴돼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1일 오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장학기금 고액 기탁자 등 내외 귀빈과 새천년 으뜸인재,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라남도 인재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한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신규 선발된 해외 유학생, 으뜸인재, 예능영재, 노벨캠프 등 7개 분야 539명의 인재를 축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로 선발된 인재들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사업별 대표 10명이 김 지사로부터 ‘전남도 인재증서’를 받았다. 중서 수여자들은 앞으로의 힘찬 도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으며, 이에 화답하는 선배 인재들의 축하 영상과 지역대학 선배들의 멋진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지난 2019년 시작한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는

2020년 1308명, 2021년 2078명 등 지난 7월까지 총 5588명의 인재를 발굴했다. 김 지사는 “많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의 인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의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첨단산업과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는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3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인재들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보자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학생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풍력발전 특별법’ 연내 제정을 박창환 전남 부지사 국회 건의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가 11일 국회를 찾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에게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박 부지사는 도 에너지산업국장 등과 함께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간사)과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송기현 의원을 잇따라 만나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은 개별 입지발굴에 따른 주민협의 난항, 여러 부처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소요 기간 장기화 등으로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주도의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선 인허가 윈스톱 전담기구 신설과 함께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5월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윈스톱 기구 신설, 국가 주도 계획입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인허가 절차에만 5~6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2년 10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0%) / 170,000 (15%) / 160,000 (20%)
	3개월	570,000	513,000 (15%) / 484,500 (20%) / 456,000 (25%)
	6개월	1,080,000	972,000 (15%) / 918,000 (20%) / 864,000 (25%)
	12개월	2,040,000	1,836,000 (15%) / 1,734,000 (20%) / 1,632,000 (25%)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 사옥 임대 문의

## (영업지원팀)

# 5층 MG문화센터

##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